

육군 전통군악대 29일 교민 위문공연 갖는다

저녁 7시 30분, 노퍽 크라이슬러 홀에서... 교민 800명 초청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노퍽 스코프 아레나(Scope Arena)에서 개최되는 “버지니아 국제 군악제”(Virginia International Tattoo)에 참가하는 한국의 육군 전통군악대(취타대)가 29일 저녁 7시 30분 동포들을 위한 위문 공연을 갖는다.

국제 군악제에 앞서 열리는 이날 공연에는 모두 800여명의 동포들을 초

청, 크라이슬러홀(Chrysler Hall)에서 특별무대를 갖는다.

이와관련 남버지니아 4개 한인회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노퍽 버지니아 아트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최종미팅을 갖고, 주최측이 준비한 800대의 티켓과 홍보전단지들 각 한인회별로 나눠 받고, 지역 교민들에게 나눠 줄 예정이다.

800대의 티켓은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타이드워터 한인회와 페닌슐라 한인회가 각각 300대씩을 받았으며, 리치몬드 한인회와 피터스버그 한인회는 각각 100대씩의 티켓을 할당 받았다. 각 한인회장들은 사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한인회별로 받은 티켓이 남을 경우 모자라는 한인회로 연락해서 공연 일주일전까지 전달하기로 하고 긴밀히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공연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다이아나 스타키 버지니아 아트페스티벌 관광 그룹세일즈 디렉터는 “많은 한인들이 29일 공연뿐 아니라 30일부터 열리는 국제군악제에도 참석해 줄것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했다.

한편 이번에 방문하는 군악대 일행

을 위한 다과, 접대 등 호스트는 행사장이 있는 타이드워터 한인회가 맡기로 하고, 타 한인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각 한인회에서는 선착순에 의해 할당된 티켓을 배부한다는 방침으로 참석을 원하는 교민들은 각 한인회로 연락해서 받으면 된다.(한인회 연락처는 본지 58면 옐로우페이지 참조)

한인회 관계자들은 티켓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해 줄 것과, 부득이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미리 한인회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군악제 관람을 원하면 전화 757-282-2822 로 연락해서 구하거나 www.ticketmaster.com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다. ■